



상반기 수입보험료 상승세 둔화

이소양 연구원

■ 7월 17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경제성장 둔화로 올해 상반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고 발표함.

- 상반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8,532.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.9% 증가했으나, 지난해 16.9%의 증가율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하락하였음.
- 세계경제 둔화 및 국내수요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GDP 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7.6%를 기록하였음.
- 방카슈랑스 위축, 불완전판매 방지 강화, 개인대리점 종업원 감소 등은 수입보험료 상승세 하락 원인으로 분석됨.

■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책 효과가 기대되고 「보험자금 투자신규」, 「양로금 조세우대정책」 시행으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상승세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.

- 올해 상반기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는데 실물경기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중국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상승세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
- 올해 하반기부터 「보험자금 투자신규」 및 「양로금 조세우대정책」이 실시될 경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보험자금 투자신규에 따른 보험자금 투자 규제 완화 및 범위 확대는 투자연동형 생명보험 수익률 제고 및 이로 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
 - 양로금 조세우대정책 시행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연금과 상업양로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

(신랑망, 7/18)